

보다 나은 사례연구: 논리와 예시*

이영철**

사례연구는 사회과학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사례연구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첫째, 사례연구의 학문적 가치는 과학주의와 상대주의를 극복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이들을 비판하며, 비판적 실재론에 바탕을 둔 사례연구 방법의 재평가를 시도한다. 또, 사례연구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사례연구설계의 장점을 제시한다. 둘째, 1960년대 초의 한국의 노동정책의 전환을 연구한 필자의 논문을 바탕으로 삼아, 좋은 사례연구가 갖추어야 할 사항- 사례의 특이성, 쟁점 중심의 접근, 맥락에 주목하기, 사례선택과 자료접근성, 사례와 새로운 이론-을 논의한다.

주제어: 사례연구, 비판적 실재론, 구성주의, 과학주의, 상대주의, 노동정책

I. 서론

사회과학의 영역에 있어서 사례연구의 유용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어떤 이는 사례연구는 그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학문적 가치는 제한적이라고 말하며, 그와는 반대로 어떤 이는 시간과 공간적 특성이 반영되는 사회과학의 대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사례연구야말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해서 2008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논평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좋은 지적에도 감사드린다.

** 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비교행정, 노동정책, 방법론이다(yunglee@jnu.ac.kr).

수 있다고 한다.¹⁾ 사례연구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사례를 연구해야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례연구는 어떤 학문적 가치를 갖는가? 만일 사례연구방법이 학문적 가치가 있다면, 보다 나은 사례연구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 글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 글은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이론적인 전제와 보다 나은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사례연구와 관련하여 네 가지 논점을 다룬다. 먼저, 사례연구의 철학적 근거를 다룬다. 과학주의와 상대주의 과학철학은 사례연구의 특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는 점을 밝히며, 비판적 실재론을 통해 사례연구의 의의를 밝힌다. 둘째, 사례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편견을 분석한다. Flyvbjerg의 논의를 소개하며 사례연구 설계의 강점을 제시한다. 세 번째, ‘사례연구’의 의미, ‘사례의 성격’에 대해서 논의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사례 ‘연구의 방법’ 혹은 ‘절차’에만 주의를 기울여온 경향이 있다.²⁾ 우리는 Gerring(2006)을 따라 사례연구와 단일결과연구를 구분하며, 이 구분에 따라, 단일결과연구는 소위 ‘과학적 일반화’가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논리를 따른다는 점을 밝힌다. 네 번째, 실제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할 때 주목해야 할 사항을 1960년대 초 한국의 노동정책의 전환이라는 구체적인 연구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Ⅱ. 사례연구의 철학적 근거: 과학주의와 상대주의 사이

1. 과학주의의 계곡

사례연구가 의미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는 과학주의의 계곡과 상대주의의 늪을 통과해야 한다. 먼저, 사례연구의 한계에 대한 과학주의의 입장을 보자. 사례연구가 과학적인 지식의 창출에 제한적이라는 주장의 핵심은 사례연구

1) 행정학 분야에서의 사례연구의 위상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이영철(2005: 72-77)과 윤건수(2008: 63-75)를 보라.

2) 사례연구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사례연구를 일관되게 수행하는데 초점을 둔 대표적인 연구로 Yin(1984)을 들 수 있다.

를 통해 얻은 지식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하나의 사례로서는 보편적인 현상을 밝혀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례연구의 이론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글에서도 이런 경향은 나타난다. 대표적인 연구의 예를 들어보면, Lijphart(1971)는 단일사례연구를 무이론적, 해석적, 가설창출적, 이론확증적, 이론 논박적, 일탈사례 연구 등 여섯 가지로 나누어 그 학문적 의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나름대로의 이론적 가치를 지닌 연구로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가설창출적 사례연구, 이론논박적 연구, 일탈사례연구를 들고 있다. 즉, 단일 사례연구는 많은 경우(instances)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명제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하지 못하지만, 가설의 검증이나 예외적인 현상을 밝히는데 기여하여 지식의 창출에 간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Eckstein(1975)은 결정적 사례를 검토하여, 사례연구가 자연과학에서와 유사하게 이론의 확증 혹은 반증에 결정적이라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는데, 한편 그는 이런 예가 드물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³⁾ 사례연구의 의의를 제고하려고 한 이런 노력은 두 가지의 다소 암묵적인 전제 위에 서있는데, 이 전제를 따른다면, 사례연구의 가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첫째,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일반화이며, 둘째, 그런 일반화는 단일사례연구로서는 가능치 않으며 다수의 사례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할 때만 가능하다. 이 전제를 수용하게 되면, 사례연구는 과학적 지식의 세계에서 대단히 제한된 역할만을 할 수 있다. 이런 전제는 받아들일만한가?

‘과학적 방법’은 자연현상의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다양한 조건하에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론 혹은 법칙을 정립한다. 정립된 이론 혹은 법칙에 따를 때, 특정한 조건 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사회과학적 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서 복잡성이 크지만, 사회현상의 설명에도 과학적 방법은 적용된다고 한다.⁵⁾ 이렇듯 과학적 방법이 현상 -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을 설명하고 예측

3) Eckstein의 논의에 따라, 사례연구의 의의를 주로 결정적 사례연구방법(crucial case method)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례연구에 대한 훌륭한 옹호가 되지 못한다. 그 사례가 보다 많고, 의미있는 연구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Gerring은 이를 경로 분석 사례(a pathway case)라고 명명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Gerring(2007)을 보라.

4) 이런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는 Carnap과 Hempel이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이를 과학주의라고 부른다. 과학주의에 따를 때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전제는 당연하다. 첫째, 사례의 연구는 극히 제한된 과학적 가치만을 지닌다. 즉, 사례연구방법은 가설을 반복적으로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경우(instance)를 연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더 나아가 정의 상 단일사례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명제를 찾아낼 수가 없다. 일반화는 일단의 유사한 사례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례연구는 일반화를 위한 예비작업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일사례가 수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Gerring 2007: 341).⁶⁾ 이것이 역설인 까닭은 역설은 사례연구를 과학주의적 입장, 법칙정립적 연구의 틀에서만 보기 때문이다.⁷⁾

2. 상대주의의 늪

단일사례연구방법이 지식을 얻는 믿을만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과학/비과학의 기준에 따라 사례연구를 비과학으로 구분하는 과학주의의 계곡을 가로질러 넘어야 할 뿐 아니라,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사례연구와 기존의 과학연구를 별 차이 없게 만들고, 나아가서 모든 연구가 하나의 관점을 드러낼 뿐이므로, 진리의 기준을 말할 수 없다는 상대주의의 늪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⁸⁾

-
- 5) 사회과학에도 자연과학의 논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Rudner(1966)를 들 수 있다.
 - 6) 한국에서도 사례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많은 사례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상현(2002)에 따르면, 1995-2001년 사이에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사례분석과 내용분석은 47.4%에 이른다.
 - 7) 사례란 특정한 범주의 하나의 경우라고 보는 견해는 미국적 이해이다. 프랑스에서는 “사례연구(analyse de cas)”를 특정 범주의 한 경우로 보지 않고, 특정현상의 연구로 보고 있다(Gerring 2006: 707-708).
 - 8) 과학주의를 객관주의라고 이해한다면, 그에 대비되는 입장은 주관주의이다. 그런데 이때의 주관주의는 인식론적으로 과학주의가 전제하는 절대적인 경험자료의 존재를 의심한다는 면에서 상대주의라고 불릴 수 있다. 이를 실증적 과학주의와 해석주의로 크게 구분할 수도 있다. 또, 정초주의와 비정초주의라고 구분할 수도 있다.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탐구의 방법을 실증주의, 후기실증주의(비판적 실재론), 비판이론, 구성주의, 참여이론 등 다섯 가지로 나눈 Guba and Lincoln(2005)과 질적 연구의 인식론적 입장을 해석주의, 해석학, 구성주의로 세분

과학주의를 비판하는 상대주의적 연구자들은 연구대상이 인간의 의식과는 별도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정초주의자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들 연구자들은 지식의 형성과정에서 인간의 주체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연구자는 지식과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해내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경험적 관찰 자료의 사실성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객관적인 입장 혹은 시각 - 신의 관점(God's eye point of view)은 인정하지 않는다(Smith and Hodkinson 2005: 917). 결국, 인간이 구성해내는 지식의 객관성을 확보할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Feyerabend가 말하듯이 “모든 것이 가능하며,” 어떠한 연구도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인가? 혹은 모든 연구의 가치가 같다면, 어떠한 연구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회의주의적인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에 의하면, 우리는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nonjudgmental) 한다(Rosenau 1992: 55). 물론 이것을 적절한 대안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항상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지식을 평가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우리는 연구를 지속하는가? Smith & Deemer(2000: 893)에 의하면, 어떤 연구를 하게 되는 결정은 방법이나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질이나 도덕적 책무감에 의해 이루어진다. Smith & Deemer는 연구자들이 인간 존재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간의 취약성과 상황의존성을 받아들이며, 인식론적인 논쟁을 거두어 버릴 것을 권고한다(2000: 891). 상대주의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상대주의는 인간존재인 우리가 유한하다는 사실에서 유래되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2000: 894).

인문과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상대주의적 입장의 결론은, 네가 속하는 지식공동체와 교류하며, 너의 양심에 따라 사례연구를 하라는 것이다. 사례연구를 지식의 탐구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회문제의 개선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위한 하나의 지적인 준비과정으로 볼 것을 권장한다. 사례연구를 통해 대상에 대한 지식의 창출에 대한 정당화를 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에서 전개된 반정초주의적 상대주의의 입장은 주로 민족지학의 질적인 사례연구

하여 검토한 Schwandt(2000)를 참조하라. 이 글의 논지를 전개하는 데는 과학주의-상대주의의 구분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

구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일반적인 사례연구에 대해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⁹⁾ 이와 같은 논리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미 100년 전에 사회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치의 문제를 고민하던 M. Weber가 사회과학의 방법론에서 펼친 논리이기도 하다. 대체로 최근의 질적 연구의 경향은 후기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아 연구대상 자체가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보며, 그 대상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¹⁰⁾ 반면, 문화적 의의를 지닌 문화과학(사회과학을 포함한다)의 객관성¹¹⁾을 검토한 Weber(1949)는 연구대상의 실재를 인정하되, 그 실재를 무한히 풍부한 성질을 지닌 하나의 사물로서, 이질적인 연속체로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¹²⁾ 연구의 대상이 무한히 풍부한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Weber는 연구자의 연구이념이 분석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때의 연구이념은 당대의 주도적인 가치이념이기 쉽다. 그런데, 이 경우에 선택된 가치이념의 우열을 따지는 일은 선부른 일이며, 그것은 사회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다. 이 논의를 통해서 Weber는 어떤 가치이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논의하고자 한 게 아니고, 그 가치이념의 전제, 그로부터 도출되는 개념 및 개념틀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고, 가치이념을 과학적으로 확립할 수 있다는 신앙 - 예컨대, 마르크스주의 - 을 철저히 극복하려고 하였다(Löwith 1992: 31). 요약하면, Weber는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어떤 가치이념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사례연구의 중요성을 밝히는 한편, 상이한 가치전제를 가진 사례연구를 비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과학주의는 연구의 대상이 우리의 외부에 실재하며, 우리는 감각자료를 통하여 그 실재를 파악하게 된다는 경험주의적 인식론에서 있기 때문에, 제한된 감각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사례연구의 가치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한편, 상대주의는 대체로 연구대상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Weber의 경우처럼 연구대상을 연속적 이질체로 상정함으로써, 인식 주체에 의해 연구대상이 구성되는 점을 부각

9) 민속지학의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의 질적 연구의 전개과정의 여덟 가지 계기를 설명한 글로는 Denzin and Lincoln(2005: 15-20)을 보라.

10) 소쉬르의 구조주의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후기구조주의자들은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의 관계는 자의적이며, 기의는 언어학적인 공간에서의 차이에 의해서 드러날 뿐이라고 본다.

11) Löwith(1992: 27)가 지적했듯이, 대단히 자기의식적인 Weber는 그의 논문 “사회과학과 사회정책에 있어서의 객관성”에서 객관성을 항상 인용부호 속에 넣어 사용하고 있다.

12) Weber의 방법론에 대한 탁월한 연구로는 Henrich(1952)를 보라.

시키게 된다. 그 결과, 사례연구는 진리 혹은 객관적인 지식을 창출하는데 적절치 못한 방법이 되어버린다. 이상의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과학주의라는 계곡을 건너고, 상대주의라는 늪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사례연구의 연구대상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3. 사례연구의 논리와 비판적 실재론

과학주의에 따를 때 일어나는 역설, 즉 사례연구의 가치를 아주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많은 사례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역설을 풀기 위해서는 법칙정립적 사례연구(nomothetic case study)와 구별되는 사례연구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Gerring(2006)을 따라, 일정한 범주의 대상을 연구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례연구(a case study)와 하나의 단일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단일결과연구(a single-outcome study)의 차이를 살펴보자.¹³⁾ 두 종류의 사례연구의 차이는 분명하다. 사례연구가 일반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단일결과연구(이하에서는 단일사례연구와 혼용하여 사용한다)는 실제적인 원인을 찾는다. 사례연구는 사례보다 더 큰 현상의 하나의 실례(instance)를 연구하는 반면, 단일사례연구는 주어진 사례 속에서 결과를 설명하려고 연구하며, 보다 분명한 실질적인 목적을 갖는다. 비유를 든다면, 사례연구가 범죄의 원인을 찾는다면, 단일사례연구는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찾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정책을 예로 들어 본다면, 사례연구가 일반적인 노동정책의 한 예로서 한국의 사례를 연구한다면, 단일사례연구는 한국의 노동정책 그 자체의 연구에 내재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한국의 노동정책의 특성, 혹은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사례연구와 단일사례연구는 인과관계를 따지는 논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사례연구가 다양한 범위에 걸치는 사례 속에 나타난 변량의 차이를 설명하려하는 반면, 단일사례연구는 그 결과의 원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사례연구가 확률적인 인과관계를 가정하며, 구조적인 인과요인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단일사례연구는 결과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을 검토하며, 상황의존적인 요인

13) Lipihart(1971)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단일결과연구와 달리, 사례연구는 암묵적으로 과학적 기준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과 고유명사에 초점을 둔다(Gerring 2006: 715-716). 사례연구가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는 반면, 단일사례연구는 공변의 관계를 바탕으로 특정한 가설을 명확히 하는데, 즉 인과 메카니즘을 밝히는데 기여한다(Gerring 2007).¹⁴⁾ 비판적 실재론자인 Bhaskar (1976)가 분명히 밝혔듯이, 과학적 탐구의 목표는 연구대상인 특정한 현상이 어떻게 혹은 왜 발생하는가를 보여주는 발생메카니즘을 밝히는 데 있고, 이런 발생메카니즘이 반드시 술한 실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검토될 때에 비로소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¹⁵⁾ 어느 하나의 실험을 통해서도 발생메카니즘은 밝혀질 수 있다.¹⁶⁾ 단일사례연구는 그 자체로서 과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과학주의를 따를 때, 술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만 연구 결과의 일반성과 과학성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사례연구는 과학적 지식의 축적에 제한된 역할만을 하게 되지만, 과학적 탐구의 목표를 발생메카니즘의 파악이라고 본다면, 단일사례연구는 그 자체로서 훌륭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단일결과 연구가 지니는 존재론적 의미는 결코 적지 않으며, 과학주의와 상대주의를 한꺼번에 넘어설 수 있는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먼저, 단일결과연구는 과학주의와 마찬가지로, 인식주체의 밖에 존재하는 연구대상의 실재를 인정한다. 단일결과 연구는 어떤 특정한 결과가 왜 발생했는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하나의 결과(연구대상)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존의 연구에 바탕을 두었든, 새로운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었든, 그 인과의 메카니즘을 밝히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 점에서 단일결과 연구는 연구대상은 인식주체가 구성해 내는 무정형적인 어떤 것, 또는 이질적 연속체로 보아 연구의 실재적 대상(the real)을 인정하지 않는 구성주의의 시각과는 다르다. 다른 한편, 단일결과연구는 연구대상의 발생 메카니즘을 밝히기 위해서 결과가 발생하는 일정한 경로를 구성해 내고, 그 발생 메카니즘을 사례의 심층

14) 이런 면에서 단일사례연구는 Tilly(1984: 80-86)가 말하는 개별화비교연구에 가깝고, 사례연구는 변이탐색연구에 가깝다.

15) 인과메카니즘(causal mechanism)과 발생메카니즘(generative mechanism)은 혼용하여 쓸 수 있다. 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이 사례연구에 대한 지니는 함의는 이영철(2006)을 보라.

16) 이론과 실험의 관계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패러다임론에 입각해 이론 간의 통약불가능성을 내세운 Kuhn의 논의에 대해서, 상이한 패러다임을 전제로 해서도 탐색적 실험이 이루어지고, 이런 탐색적 실험 속에서도 새로운 과학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탁월한 분석은 Burian(2001)을 보라.

적 검토를 통해 밝혀내고자 하는 점에서 구성적인 측면을 그 방법의 핵심에 포함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단일결과연구는 상대주의와 공통점을 지니며, 구성주의적 요소를 그 개념적 틀에 포괄하지 못하는 과학주의와는 다르다. 단일결과연구는 이렇게 연구대상이 인식주체의 외부에 실재한다고 보는 점에서 실재론인 반면, 그 실재의 구체적인 속성은 인식주체에 의해 비판적으로 구성되고, 실험 혹은 심층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보는 점에서 비판적인 구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존재론적으로는 실재론에, 인식론적으로는 구성주의에 뿌리를 둔 비판적 실재론에 입각하여 적절히 수행된 단일사례연구는 과학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서 수 있고, 의미 있는 지식의 창출과 지식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 단일사례연구는 인식대상의 실재적인 존재를 받아들이는 한편, 순진한 경험주의인 과학주의와는 달리, 지식 창출에 있어서 관찰자료의 이론-적재성(theory-laden)을 인정하고, 이론의 중요성을 연구의 전제로 삼는다. 한편, 단일사례연구는 연구대상의 구성적 성격을 강조한 나머지, 구성된 연구대상에 대해 솔하게 가능한 지식주장에 대해서 그 객관성이나 진리를 비교, 검토할 근거를 상실해 버린 상대주의와는 달리, 연구대상의 존재, 가설의 설정과정에 대해서 구성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면서도 연구대상의 실재성을 전제함으로써 연구자에 의해서 구성된 발생 메카니즘이 실질적인 사례연구의 결과와 얼마나 조응하는지를 판단해 볼 근거를 제공한다. 또, 어떤 사례연구의 결과가 우리가 상정했던 사례에 더욱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지 판단할 근거를 제공한다.¹⁷⁾ 요컨대, 단일사례연구는 과학주의와 구성주의적 상대론을 넘어서서, 실재하는 대상에 대해 보다 나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17) 상대주의를 따르고 있는 Smith and Deemer(2000: 880-884)는 비판적 실재론을 상대주의에 대한 준정초주의(quasi-foundationalist)적 대응이라고 보면서, 준정초주의는 어떤 사례연구가 타당한가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이들의 논의는 비판적 실재론에서 중요한 사례연구의 결과와 사례연구가 상정한 실재하는 메카니즘과의 대비라는 측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Ⅲ. 사례연구에 대한 오해와 사례연구방법의 가치

1. 사례연구에 대한 오해

사례연구의 한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또 다른 각도에서 논박될 수 있다. 사례연구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다섯 가지 오해로 정리한 후, 인간의 지식형성 과정에 입각하여, 사례연구의 가치를 정리한 Flyvbjerg의 논의는 다시 흥미해 볼 만 하다. Flyvbjerg(2006)가 정리한 사례연구에 대한 다섯 가지 오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이론적인(맥락과 상관없는) 지식이 구체적인, 실제적인(맥락 의존적인) 지식보다 더 가치 있다. 둘째, 하나의 개별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례연구는 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 셋째, 사례연구는 가설의 창출에 보다 유용하다; 전체연구과정의 첫 단계에 유용한 반면, 다른 방법이 가설테스트와 이론형성에 보다 적합하다. 넷째, 사례연구는 확증 편향적이다; 연구자가 미리 상정한 관념을 확증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특정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명제와 이론을 요약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종종 어렵다.

2. 지식형성의 본질과 사례연구방법의 가치

Flyvbjerg는 이런 오해가 실은 지식의 형성과 사례연구의 연구의 본성에 대한 물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본다. 먼저, 지식의 형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전문가(혹은 전문지식)는 규칙에 바탕(rule-based)을 둔 지식이 아니라, 맥락의존적인(context-dependent)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밀도 높은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맥락의존적 지식과 경험이야말로 전문활동의 핵심을 구성한다. 규칙에 바탕을 둔 지식은 학습과정과 이론작업의 저차원 단계에 속할 뿐이다. 이는 인간의 지식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결국 인간은 매우 능력있는 인식자이고” “질적인 상식적인 앎(knowing)은 양적인 앎에 의해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식적 자연주의적 관찰이 객관적이고, 믿을만하거나 편향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그것뿐이다. 그것이 지식에의 유일한 길이다 - 아무리 잡음이 나고, 오류가 있고, 편향되었

다고 하여도(Campbell 1975: 179, 191; Flyvbjerg 224에서 재인용).” 인간의 지식형성에 대한 이런 관점에 의하면 사례연구를 통한 지식에 의해서만 우리는 전문성 혹은 지적인 거장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

인간의 지식형성과정과 사례연구의 본성에 대한 현상학적인 이해에 따르면, 위에서 지적한 다섯 가지 오해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첫째, 인간사를 연구하는데 예측이론, 보편적인 것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체적, 맥락의존적 지식이 예측적 이론과 보편적인 것을 탐구하는 헛된 노력보다 더 가치 있다. 둘째, 우리는 단일사례를 바탕으로 일반화할 수 있고, 사례연구는 다른 방법에 대한 보충으로 혹은 대안으로 일반화를 통한 과학발전에 중심적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모범적 사례의 힘”은 과소평가되어 있는 반면, 형식적 일반화는 과학발전의 원천으로서 과대평가되어 있다. 셋째, 사례연구는 가설의 창출과 테스트 모두에 유용하며, 그 유용성이 이런 연구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사례연구는 다른 연구방법보다 연구자가 미리 상정한 관념을 확증하려는데 더 큰 편향성을 지니지 않았다. 오히려, 경험에 의하면, 기존 관념의 확증보다는 반증하는데 더 큰 편향성을 지녔다. 다섯째, 사례연구들을, 특히 사례의 절차를 요약하는 것이 종종 어렵다는 지적은 옳다. 사례의 결과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사례연구들을 요약하는데 따른 문제는 종종 연구방법으로서의 사례연구방법보다는 연구된 현실의 속성에 기인한다. 종종, 사례연구들을 요약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연구는 그 전체가 이야기(narrative)로 읽혀야 한다.

Flyvbjerg는 사례연구에 대한 표준적인 설명을 반박하는 한편, 사례연구가 여러 측면에서 다른 연구방법보다 오히려 우수하다는 것을 지식형성에 관한 현상학적 논리에 따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런 논의는 사례연구가 이상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연구에 대한 기존의 비판이 많은 부실한 사례연구에 적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적인 사례연구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에 앞서, 사례연구방법과 사회과학과의 관계를 논의해보자.

3. 사례연구방법과 사회과학

사회과학과 관련된 사례연구의 의미는 이미 검토되었지만, 두 가지 측면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례연구와 인과적 설명의 관계이다. 일찍이 Kuhn은 패러다임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모범적 사례연구(exemplar)가 지니는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Kuhn은 표준적인 과학의 이미지, 즉 가설의 검증과 연구의 집적에 따른 과학의 발전에 관한 기존의 과학관이 실제적인 과학의 발전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범적 사례연구가 과학 활동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이 모범적 사례연구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은, Bhaskar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기존의 이론이 밝히지 못한 발생기제(generative mechanisms)를 밝혀내는데 있다.¹⁸⁾ 이는 사회과학의 사례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회과학계에서 많이 논의되는 인과적 효과와 인과적 기제를 구분해 말한다면,¹⁹⁾ 기존의 표준적인 연구가 인과적 효과를 밝히는데 가치를 가지는 반면, 단일 사례연구는 인과적 기제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활동의 궁극적 역할이 사회현상의 인과적 기제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사례연구는 다른 어떤 연구 방법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연과학에서의 사례의 의미가 사회과학에서도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사례연구는 사회과학에서도 자연과학에서처럼 인과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가? 사회과학은 반성적인 존재인 인간을 그 대상으로 다루기 때문에 자연과학과는 다르다고 보는 이론가들에게 사례연구가 사회현상의 인과적 기제를 밝힐 수 있다는 주장은 과학주의에 경도된 주장으로 보인다. Flyvbjerg는 예측이론과 맥락의존적 사례연구를 비교하면서, 사회과학에서는 보편적인 이론 추구의 노력이 헛되다고 보았다. 한편, 그는 사례연구의 인과적 설명력을 제시하여, 이중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중적 입장은 모순적이라기보다, 사회적 실재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는 자연과학의 대상과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실재를 대상화

18) 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과 사례연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영철(2006)을 보라. Kuhn, Popper, Lakatos, Bhaskar의 과학철학을 간략히 비교한 글은 이영철(2008)을 보라.

19) Gerring(2004), 348-349.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사회적 실재를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즉 맥락의존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다.²⁰⁾ 사회적 실재의 대상화는 가능하되, 지나친 일반화, 보편법칙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회적 실재의 제한적 대상화마저 부정한다면,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들이 말하는 초현실(hyperreality)의 세계에 사는 것이다.²¹⁾ 이런 초현실의 세계를 받아들인다면,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들이 논리적으로 밝혔듯이, (사회)과학은 존재할 수 없다. Lyotard(1984: 3)가 간명히 표현한 것처럼, “과학적 지식은 일종의 담론”에 불과해진다. 요약해 보면, 우리는 사례연구가 사회현상의 인과적 기제를 밝히는데 탁월한 방법이라고 보며, 그런 의미에서 사례연구는 상대주의에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사례연구가 밝히는 인과적 기제는 맥락의존적인 것으로, 과도한 일반화는 경계되어야 한다.

IV. 보다 나은 사례연구를 위하여

1. 사례연구설계의 장단점

보다 나은 사례연구는 먼저 사례연구에 대해 폄하하는 기존의 관념을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사례연구는 사회과학의 정당한 연구방법이며, 역사성과 맥락을 가지는 사회현상의 연구에 존재론적으로 적절한 연구방법이다(이영철 2006). 일단 기존의 관념을 버리면, 우리는 사례연구의 장점과 약점을 불편부당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사례연구설계를 단일사례연구설계와 비교사례연구설계의 두 가지로 나누어 그 장단점을 비교하면 <표 1>과 같은데(Gerring 2004: 346), 보다 나

20) 사례연구를 현상에 대한 분석의 관점이 아니라, 집필의 관점에서 볼 때, 사례연구의 폭과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고 보는 윤건수(2008)의 주장은 흥미있는데, 이런 구성주의적 입장은 포스트모던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이 사회적 실재를 발견해 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낸다고 주장함으로써 상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회적 실재의 ‘사실성(factuality)’을 인정하지 않는 구성주의는 상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실제로, 구성주의는 존재론적 논의가 아니며, 존재론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Schwandt 2000: 197-198).

21) 후기언어구조주의에 입각한 포스트모던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연구대상은 끊임없는 언어의 유희 속에 사라져 버린다. 각주10)참조.

은 사례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설계상의 특징을 되새겨둘 필요가 있다.

<표 1> 단일사례연구 vs. 비교사례 연구 설계: 장단점

		장단점	
		단일사례	비교사례
1. 추론의 유형	a) 서술적 b) 인과적	+	+
2. 명제의 범위	a) 깊이 b) 폭 c) 경계	+	+ +
3. 분석단위의 동질성	a) 사례 비교가능성(내적) b) 대표성(외적)	+	+
4. 인과적 통찰력	a) 인과적 메카니즘 b) 인과적 효과	+	+
5. 인과적 관계	a) 불변적 b) 확률적	+	+
6. 연구의 전략	a) 탐색적(이론 형성) b) 확증적(이론 검증)	+	+
7. 유용한 변이	a) 단일 단위에만 적용 b) 다수 사례 적용	+	+
8. 존재론		불확정적	

단일사례연구설계는 비교사례연구설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술적인 경우가 많고, 제시하는 명제와 분석의 깊이는 깊은 반면, 제시하는 명제와 분석의 폭과 경계는 좁다고 할 수 있다. 단일사례연구설계는 분석단위가 비교가능한 (즉, 동질적인)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이 설계에서 확인된 인과관계가 다른 단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되기는 어렵다. 즉 사례의 대표성은 떨어진다. 단일사례연구설계는 X와 Y가 어떻게 연계되는가 하는 인과적 메카니즘을 밝히는데 유효하지만, X가 Y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밝히는 데에는 덜 유효하다. 인과적 관계의 성격을 보면, 단일사례연구설계는 일정 조건이 주어지면 항상 성립되는 불변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반면, 비교사례연구설계는 하나의 원인은 하나의 결과를 초래할 확률을 높일 것이라는 확률적 관계를 설정한다. 연구의 전략측면에서 보면, 단일사례연구설계에서는 특정한 사례와 주제를 주관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많은 가설과 통찰력을 얻을 가능성이 커, 탐색적인 연구가 되기 쉬운 반면, 비교연구사례는 상

대적으로 적은 수의 가설을 보다 큰 확신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다. 단일사례연구 설계는 변수의 변이가 하나의 단위에서만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비교사례연구설계는 변수의 변이가 다수의 단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설계의 존재론적 가정을 보자. 만일 잠재적인 연구단위 각각이 아주 개별적이거나, 연구단위 모두가 완벽하게 비교가능한(즉 동질적인) 경우에는 사례연구설계는 무의미해진다. 각 단위가 개별적이라면,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은 없게 되고, 각 단위가 동질적이라면, 특별히 하나의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연구설계는 단일사례연구설계이든, 비교사례연구설계이든,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각각 별개도 아니고, 서로 완전히 같지도 않은 중간 범위에 있을 때 그 의의가 있다. 두 가지 연구설계의 장단점을 비교해 본 것은 두 가지 사례연구설계가 상황에 따라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2. 보다 나은 사례연구

1) 사례연구

이상적인 사례연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되는가? 사례연구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있다. 우리는 Gerring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유사한) 단위의 보다 큰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단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라고 정의된다(Gerring 2004: 342). 여기서 단위란 공간적으로 한정된 현상으로서 - 예, 민족국가, 혁명, 정당, 선거, 혹은 사람 - 단일 시점 혹은 일정하게 제한된 시기 동안에 관찰되어진다. 사례를 다른 개념과 구분하면 “전체집단(population)”은 “샘플”로 구성되고, 샘플은 “단위”로 구성되며, 특정시간에 관찰된 각 단위는 “사례”가 된다. 사례는 몇 개의 유의미한 차원(변수)으로 구성되며, 각 변수는 “관찰치(들)”에 바탕을 둔다. 이 용어들은 모두 특정한 연구의 명제와 그에 상응하는 연구설계에 의해 정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가 간 시계열 회귀 분석에서, 단위는 국가이며, 사례는 각 시점의 국가이고, 관찰치는 각 사례의 여러 변수에 관해 수집된다. 그런데, 집단 간 시계열 분석을 하면, 단위는 집단이며, 사례는 각 시점의 집단이 된다.

2) 보다 나은 단일사례연구의 수행: 하나의 예시

좋은 사례연구란 무엇인가? 좋은 사례연구는 위의 <표 1>에서 Gerring이 제시한 연구설계의 장점을 잘 고려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다양하며, 수도 많다. 필자가 중요하게 보는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좋은 사례연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연구를 예(examples)로서 제시하며, 포괄적인 논의를 펼 수도 있고, 특정한 사례연구를 하나의 일례(illustration)로 들어서 논의를 펼 수도 있다. 후자의 방법을 따르면, 포괄성이 떨어지지만, 논의의 집중도는 높일 수 있고, 사실 사례연구가 심층연구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후자의 방법이 이 글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 이 글은 필자의 논문을 예시로 삼아, 보다 나은 사례연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을 논의한다.

1961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집권한 지 3달 만에 산업별 노동조합체제의 도입, 제2노조의 금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제약 등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관계정책을 펼쳤다. 필자는 “재편의 정치와 노동의 재편: 발전적 권위주의 국가 노동정책의 원형”(이영철 1999)을 통하여, 새로운 노동정책의 전환을 분석해 보았다. 이 논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노동법개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둘째, 기존의 이론적 설명인 수출주도-노동배제론과 코포라티즘적 통제전략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셋째, 노동정책의 전환과 노동조합조직의 재편을 발전적 권위주의 국가로의 전환과정 속에서 해석하였다. 여기에서, 필자는 노동정책의 전환을 국가발전의 과정 속에서 보는 한편, 노동정책 전환과정에서의 쟁점을 당시의 국회회의록을 통해 분석하였다.

(1) 사례의 특수한 성격 찾기

사례연구는 그 연구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니는 다른 사례와의 공통점과 특수성을 모두 찾고자 한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종종 특수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게 되고, 그 특수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의 작용으로 나타난다(Stake 2005: 447-448): i) 사례의 속성, 특히 그 활동과 기능; ii) 역사적 배경; iii) 물리적 환경; iv) 다른 맥락 - 예를 들면, 경제, 정치, 법적, 미적 맥락; v) 해당 사례가 인지하게 되는 다른 사례들; vi) 사례를 알려 준 정보제공자. 여기서 열거한 요소는 사례연구에 있어서 출발점

이 되는 정보의 원천이다.

사례의 특수한 성격은 그 사례의 이론적 가치를 정하는데 중요하다. 너무 개별적이어서 어떤 유형을 대표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례와의 비교가능성이 없어지고, 그 학문적 가치 및 연구의 실질적 가치는 거의 없어지게 되는 반면, 사례가 일련의 현상을 대표하게 될 때, 그 사례는 보다 큰 의의를 지닐 수 있다.

필자는 1961-63년 사이에 쿠데타에 의한 군사정부 시절,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에서 산별노동조합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이 전환과정은 기업별노동조합 체제가 주요한 노동조합의 형태이던 당시에는 노동계의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이었고, 이때 형성된 산별노동조합체제는 그 이후 다양한 수정의 길을 겪게 되지만, 하나의 준거점으로 작용한다. 1980년 이후 산별노동조합체제는 법적으로 제약되어, 극도로 제한적인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가 들어섰는가 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산업별 체제로의 전환이 일부에서 강하게 요구되었으며, 현재, 산별체제로의 전환의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시야에서 볼 때, 필자의 분석사례는 한국의 노동조합체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여러 모습으로 변용을 겪어 온 노동조합체제를, 한국이라는 동일 국가체제 내에서의 변화라는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2) 쟁점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는 무엇보다 문제에 입각한(problem-driven)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문제(problem)로 정의되고, 제기되는가 하는 것은 간단히 설명될 수 없다. 문제의 인식과 이론과의 관계는 복잡적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문제, 혹은 쟁점의 인지는 이론을 필요로 하고, 이론은 쟁점의 분석을 통해서, 세련화되고, 수정되고, 혹은 재정립(reframe)될 수 있으며, 이렇게 수정된 이론은 쟁점을 다시 들여다보게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론이 먼저인가, 사례가 먼저인가 라는 질문은 상아탑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그 질문은 실질적인 연구과정에서 대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좋은 사례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와 이론과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Malinowski(1922: 9)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연구자는 미리 설정한 관념이 아니라, 연구현상의 전조가 되는 많은 문제(foreshadowed problems)를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²²⁾

필자의 분석 사례를 예로 들어 당시의 노동정책의 전환이 어떻게 연구되었는지를 살펴보자. 1960년대 이후의 한국의 노동정책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즉 어떻게 노동조합을 통제하려느냐 라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수출산업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배제론과 국가의 코포라티즘적 통제전략론의 관점이 제시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사례연구의 문제점에서 지적된 것처럼, 대체로 이론적 관점을 제시한 후 그에 맞게 사실을 찾아내는 이론확증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²³⁾ 수출산업화를 위한 노동조합배제론은 이 이론이 얼마나 쟁점 중심이 아니라 이론 중심인가를 잘 보여주며, 또, 사후에 인과관계를 상정해 설명해 보려는 좋은(?) 사례이다. 즉, 이 이론은 비교우위론, 수출주도 산업화의 추진을 강력한 노동통제론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1961-63년 당시에는 소위 무제한적인 노동력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고, 수출주도 산업화가 아직 태동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의 수출은 거의가 1차 산업 생산물이어서, 제조업 부문의 노동조합의 통제와는 상관이 없었다. 한마디로, 사실적 근거가 없는 학설이 현실을 새롭게 찾아내어 만들어 내려 했고, 안타깝게도 이 학설이 폭넓게 수용되었다. 코포라티즘적 노동통제전략론도 역시 이론에 의해서 현실을 설명해 보려는 예라고 할 수 있다.²⁴⁾

Malinowski의 지적처럼, 미리 설정한 관념에서 출발하게 될 때, 사실과 쟁점사안에 직면하지 않는 사례연구가 되기 쉽다. 기존의 관념을 확인하는 사례연구가 되기 쉽다. 좋은 사례연구는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의 파악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기존의 두 가지 연구경향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1961-1963년 사이에 이루어진 산업별노동조합체제로의 전환은 군사정부가 쿠데타 직후에 발표한 노동조합에 대한 임시조치에 의거해 촉박하게 실행에 옮겨진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한 양상으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이런 경과를 무시한 채, 기존의 이론에 기대면 진행된 사실의 확인을 소홀히 하기 쉽고, 많은 연구

22) Stake(2005: 461)에서 재인용.

23) 이는 노동정책의 사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례연구가 ‘머리로부터 시작되’거나(윤건수 2005: 11), ‘지극히 연역적 논리 전개과정’(김승현 2008: 312)을 따르고 있다.

24) 상세한 비판은 이영철(1999: 282-284)를 보라.

가 그런 잘못을 범해왔다. 필자가 분석한 사례의 경우, 군사정부에서 임시조치로 시행된 노동체제의 전환과 이를 입법화하려는 정책과정에서 숱한 쟁점이 국회에서 부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생생한 기록이 국회 의사록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우리의 사례연구가 얼마나 선부른 이론을 적용해 보는데 급급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이론의 적용이 현상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장애가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Hirshman 1970). 기존의 연구는 대상의 연구에 전조가 되어준 문제와 상황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고, 따라서 당시의 사정과 는 동떨어진 이론을 적용하는데 정력을 낭비했다고 말할 수 있다.

(3) 맥락에 주목

쟁점은 그 환경(setting)과 상호작용한다. 사례는 많은 수의 맥락 혹은 배경에 감싸여 있는 환경 속에 자리잡고 있는 복잡한 실체이다. 환경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윤리적/미적 환경 등의 여러 측면을 지닌다. 사례는 단 하나의 단위를 이룬다고 해도, 사례는 다양한 유의미한 차원을 지니며, 각 차원은 여러 가지 관찰값을 갖기 마련이다. 쟁점이 환경과 어떤 형식으로든 상호작용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중국에는 맥락과의 관계성이 깊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도 환경은 일단 논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필자가 분석한 사례의 경우, 한국의 노동운동의 성격과 국가의 성격, 노동운동과 국가의 상호작용이 연구의 중심에 놓이겠지만, 당시의 권위주의적 문화, 권위주의 국가의 전통, 미약한 산업발전과 조합원이 아닌 간부중심의 정치활동에 치중했던 노동조합운동의 역사가 분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수출산업화-노동배제론처럼 이미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처럼 가정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거나, 코포라티즘적 노동통제론처럼 마치 한국에 상당한 수준의 노동지도자-노동조합원의 연대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필자의 분석은 맥락이 행위자와 다채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모형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였다. 한편, 적용 가능한 모형으로 생각될 수 있는 Dunlop이 제시한 산업관계체계론 역시 적합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먼저 정책결정 모형과 관련하여, 필자는 Kingdon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출발점으로 삼았는데, 이모형은 우리를 합리주의적 편견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체제를 둘러싼 환경의 여러 요인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다. Dunlop의 산업관계체계론은 노동분야의 쟁점이 곧 산업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다원주의 사회에서나 적용되기 쉬운 논리이며, 또한 이 이론은 다원주의적/합리주의적 결정모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 전에 그 적실성 여부를 꼼꼼이 판단해 보아야 한다. 한국의 노동정책을 분석할 때에는 한국에서는 정치적 권력이 막중한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서구에서와는 달리 산업관계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을 검토할 때, 당시에 막 출간된 박정희의 「국가와 혁명과 나」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정치적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4) 사례의 선택과 자료접근성

사례연구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 중 하나는 사례의 선택이다. 사례선택은 내재적 가치에 따를 수도 있고, 수단적 가치에 따를 수도 있다. 내재적 가치의 사례는 사례 자체가, 이론적인 이유이든 혹은 독특함이라는 특성 때문이든, 흥미를 자아내는 사례를 말한다. 이런 사례의 경우, 특징적이며, 독특하고, 경계가 분명할수록, 그 유용성이 크다(Stake 2005: 445). 이 경우에는 이론형성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 아니다. 사례 그 전체를 그 자체로서 이해하는데 의미를 둔다. 그렇지만 내재적 가치의 사례연구도 일반화에 도움이 된다. 반증사례나 인과적 기제를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수단적인 사례는 그 사례가 어떤 쟁점에 통찰력을 제공하거나 일반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를 말한다. 일반화나 비교에 주로 초점을 두게 되면, 사례의 독특함이나 복잡성은 상대적으로 무시된다.

그 어떤 사례를 택하든 자료에의 접근가능성은 사례연구에 중요하다. Stake처럼, 자료의 접근가능성을 사례의 대표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다. 사례를 통하여 진정으로 연구대상인 현상을 아는데 중점을 둔다면, 밀도 높은 자료의 획득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분석은 무엇보다도, 쿠데타정부의 핵심이 된 250여명의 군 장교 출신이

²⁵⁾ 중대사례와 경로분석사례에 대한 탁월한 논의는 Gerring(2007)을 보라.

군사혁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정국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과, 그 과정의 일부로서 노동계를 장악해 나가는 양상을 주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필자의 사례분석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산업별노동조합제도를 채택하기로 한 임시조치와 그 이후의 법제화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의 논란을 담은 상세한 속기록이 있기 때문이었다. 국회의 속기록은 산별노조체제를 제안한 여당의 입장, 정부의 원안에 대한 전문위원 자신의 견해, 친정부적, 반정부적 노동계의 시각, 야당의 입장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국회의 속기록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풍부한 자료를 구득할 수 없다면, 좋은 사례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5) 사례연구와 이론의 모색

사례연구는 하나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대상이 되는 현상을 새롭게 보는 통찰력을 얻을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사례연구는 이런 면에서 다른 연구방법보다 우수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찰력은 연구대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할 때, 연구 대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론화하려하거나, 기존의 이론에 얽매이지 않을 때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²⁶⁾

필자의 분석은 이런 방법을 따랐다. 필자의 분석은 논문의 목차에서 잘 나타나듯이 무엇보다도 먼저 설명해야 할 대상인 개정된 노동법의 내용을 제시하는데서 출발하였다. 이론의 확인이 아니라, 문제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수출주도-노동배제론과 코포라티즘적 통제전략론이 당시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존의 이론이 노동정책의 전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목한 것은 다양한, 상충하는 목소리가 담겨있는 국회의 회의록이었다. 상충하는 목소리가 어떻게 정리되었는가를 추론해 나가면서, 필자는 노동분야 이외의 다른 영역, 즉, 정치부문, 경제부문과 정

26) Seale(1999)은 이론에 압도되지 않고, 지나친 이론화에 얽매이지 않으며, 구성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상황의존성, 오류가능성, 대화, 숙고를 통한 연구행위를 통해서 질적연구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부와 경제부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변화의 양상을 살피고, 동북아 질서 속의 한국정부의 위치 등을 검토하였다. 물론, 이렇게 검토의 대상을 확장해 나간 것은 C. Johnson(1982)이 제시하고, B. Cumings(1984)가 제시한 동아시아의 발전지향형 국가(developmental state) 개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지만, 발전지향형 국가 개념 때문에 국회의 회의록을 검토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노동정책의 전환이라는 예기치 않은 정책전환을 이해하기 해서는 그 입법화과정을 보아야 했고, 그 입법화과정의 상충하는 의견이 생생하게 들리는 기록이 노동정책의 전환과 당시의 정치, 경제적 변화를 연결 짓도록 만들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필자가 찾게 된 것은 당시의 권력자들이 즐겨 사용한 ‘재편의 정치’학이었다. 정당체제의 변화, 행정부의 장악, 전경련의 재구성 등 여러 면에서 재편의 정치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 중심개념을 통해서, 필자는 ‘재편의 정치’에서 ‘노동의 재편’으로 진행되어진 노동정책 결정과정의 특성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정책결정 과정을 한국에서 전개된 발전지향형 권위주의의 국가형성의 한 모습으로 규정짓게 되었다.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통해서 외국인인 Johnson이나 Cumings가 보지 못했던 한국에서 진행된 발전지향형 권위주의의 국가 형성의 속살을 밝혔다. 1960년대 초, 노동정책의 전환이라는 하나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개념이 한국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는가를 모습을 밝힐 수 있었다.²⁷⁾ 하나의 분석대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례연구방법은 새로운 개념을 찾아내는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Gerring이 지적한 사례연구의 역설이 아직도 역설인 것은 사례연구를 위한 이론적인 지지의 근거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지 않고, 널리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기 때

27) 하나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 예는 무수히 많다. 한국의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코포라티즘과 관료적 권위주의이다. Schmitter(1971)의 국가코포라티즘 개념은 브라질의 정부와 노동조합 관계의 사례연구의 과정에서 새로이 적용된 개념이며, O'Donnell(1979)의 관료적 권위주의는 주로 아르헨티나의 경험을 사례로 삼아, 남미의 인접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문이다. 사례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기 위해 이 글은 먼저 과학철학의 큰 흐름인 과학주의와 구성주의적인 상대주의에 따를 때, 사례연구는 이론적으로 극히 제한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대안적인 과학철학의 시각인 비판적 실재론에 입각할 때, 사례연구를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이 다져진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간략히 다루었기 때문에 보다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사례)연구의 대상의 성격에 대한 존재론적 논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의 후반부는 보다 나은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주목할 점을 열거하고, 필자의 논문을 예로 삼아, 좋은 사례연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예시해 보았다. 한국의 노동정책과정에 대한 필자의 분석사례를 통하여, 우리 학계에서 발견되는 비-사례연구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연구가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사례연구의 논리와 방법에 대한 몰이해 못지않게 부실한 사례연구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 글에서 분석한 노동정책의 사례를 다시 돌아보면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밀도 높은 지식에 바탕을 둔 사례연구를 옹호한 (III절의 2에서 인용한) Campbell의 진술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되돌아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의 행정학자들은 “매우 능력있는 인식자(knower)인가? 질적인 상식적인 앎(knowing)이 양적인 앎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만큼 풍부한가?”

■ 참고문헌

- 김승현. 2008. “행정학분야의 실증적 사례연구에 관한 분석과 평가.” 《정부학연구》 14(4): 293-319.
- 윤건수. 2005.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보》 39(2): 1-22.
- 윤건수. 2008. “사례연구: 분석의 세계에서 집필의 세계로.” 《한국정책학회보》 17(4): 64-87.
- 이영철. 1999. “재편의 정치와 노동의 재편: 발전적 권위주의 국가 노동정책의 원형.” 《한국행정학보》 33(1): 279-294.
- _____ 2006. “사회과학에서 사례연구의 이론적 지위: 비판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한

- 국행정학보》 40(1): 71-90.
- _____ 2008. “패러다임에서 실재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 주상현. 2002. “한국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최근 7년(1995-201)간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3): 39-55.
- Burian, Richard. 2001. “The Dilemma of Case Studies Resolved: The Virtues of Using Case Studies in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Perspectives on Science*, 9(4): 383-404.
- Cumings, Bruce. 1984.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 1-40.
- Denzin, N. K. and Y.S. Lincoln, eds. 2000.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2nd ed.
- Denzin, N. K. and Y.S. Lincoln, eds. 2005.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3rd ed.
- Eckstein, H. 1975. “Case Studies and Theory in Political Science.” In F.I. Greenstein and N.W. Polsby, eds. 1975.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Scope and Theory*, 94-137. Reading, MA: Addison-Wesley.
- Flyvbjerg, Bent. 2006. “Five Misunderstandings About Case-Study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2(2): 219-245.
- Gerring, John. 2004. “What Is a Case Study and What Is It Good f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2): 341-354.
- _____ 2006. “Single-Outcome Studies.” *International Sociology* 21(5): 707-734.
- _____ 2007. “Is There a (Viable) Crucial-case Method?”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3: 231-253.
- Henrich, Dieter. 1952. *Die Einheit der Wissenschaftslehre Max Webers*. Tubingen: J.C.B. Mohr. [이상률 (역) 1983. 막스 베버의 과학방법론 서울: 이삭]
- Hirschman, Albert O. 1970. “The Search for Paradigms as a Hindrance to Understanding.” *World Politics* 22(3): 329-343.
- Johnson, Chalmers.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ijphart, A. 1971.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American Political*

- Science Review, 99(3): 682-693.
- Löwith, Karl. 1932. *Max Weber und Karl Marx*. [이상률 (역) 1992. 베버와 마르크스. 서울: 문예출판사]
- Lyotard, Jean-Francois.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Malinowski, B. 1922.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Waveland: Prospect Heights.
- O'Donnell, Guillermo A. 1979.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Studies in South American Politics*. Berkel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 Rosenau, Pauline M. 1992. *Post-Modernism and the Social Sciences: Insights, Inroads, and Intrus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dner, Richard S. 1966.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chmitter, Philippe C. 1971. *Interest Conflict and Political Change in Brazil*.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chwandt, Thomas A. 2000. "Three Epistemological Stances for Qualitative Inquiry: Interpretism, Hermeneutics and Social Constructionism." In N.K. Denzin and Y.S. Lincoln, eds. 189-213.
- Seale, Clive. 1999. "Quality in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Practice* 5(4): 465-478.
- Smith, John K. and Deborah K. Deemer. 2000. "The Problem of Criteria in the Age of Relativism." In Denzin and Lincoln. eds. 877-896.
- Smith, John K. and Phil Hodkinson. 2005. "Relativism, Criteria and Politics." In Denzin and Lincoln, eds. 915-932.
- Stake, Robert. 2005. "Qualitative Case Studies." In Denzin and Lincoln, eds. 443-466.
- Tilly, Charles. 1984. *Big Structures, Large Processes, Huge Compariso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Weber, Max. 1949. *The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s*. Trans. by E.A. Shills and H. A. Finch. Free Press: New York.
- Yin, R. K. 198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Beverly Hills: Sage.